

국내 주식 투자전략

차츰 안정을 찾을 전망



KOSPI,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1,980선 회복

다만, 금융시장의 리스크 지표들 반등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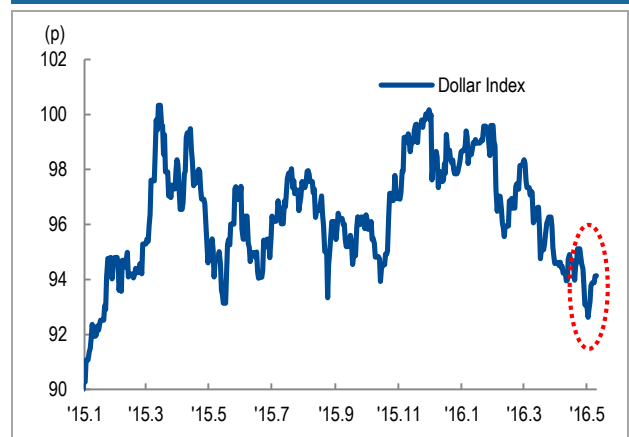
- 전일 KOSPI는 3거래일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1,980선을 회복하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막판 순매수로 돌아서며 지수상승을 견인하였다. 다만, G2의 경제지표 부진에 이어 원/달러 환율 상승 및 국제유가 하락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탄력적인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진다.
- 지난 4월 KOSPI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보인 주된 이유가 1) 국제유가 상승 및 2)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었는데, 주초 발표된 중국의 4월 수출입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경기회복 기대감이 낮아진 것이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 이에 2월 중순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금융시장의 주요 리스크 지표들(VIX, Macro Risk Index 등)도 5월 들어 반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선진국 대비 신흥국 채권의 가산금리를 나타내는 EMBI Spread가 반등세를 보이며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던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MBI Spread 추이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Dollar Index 추이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 여기에 4월 FOMC회의 이후 약세를 보이던 달러화도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박스권 하단부에서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12일에는 FOMC회의에 투표권이 있는 연준위원 세 명(에릭 로젠그렌(Eric Rosengren) 보스턴 연은 총재, 에스더 조지(Esther George)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로레타 메스터(Loretta Mester)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연설이 동시에 예정되어 있어서 투자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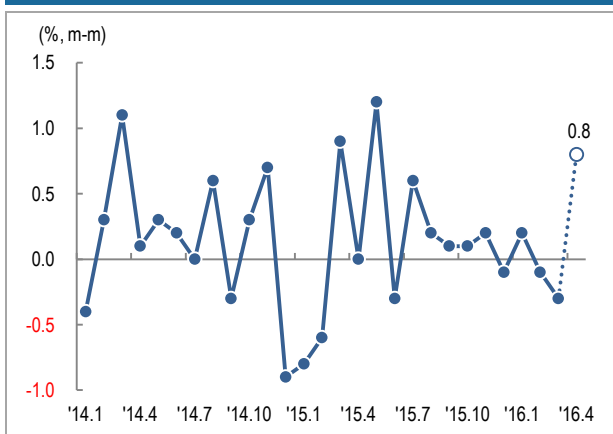
이번주 후반 G2의 경제지표 개선 기대

- 이처럼 국내 증시는 대외 불확실성(미국 금리인상 불확실성, 중국의 경기회복 기대감 후퇴, 유가 하락 등)으로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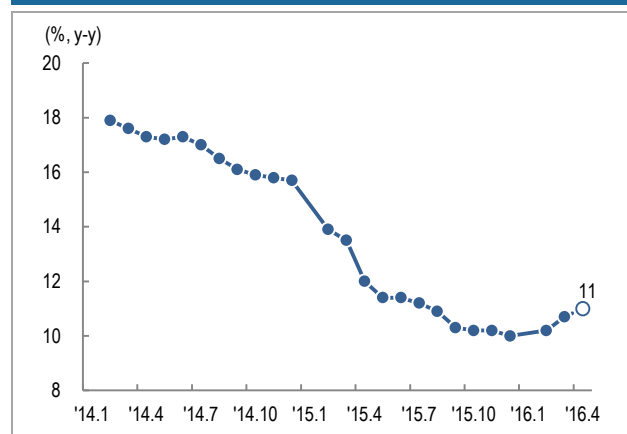
- 하지만, 이번주 후반 미국의 소비와 중국의 투자지표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위축된 투자심리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먼저, 13일에는 미국의 5월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와 4월 소매판매가 발표될 예정이다. 5월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가 89.5로 5개월만에 상승세로 전환(전월 89.0)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4월 소매판매 역시 지난해 5월 이후 1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여기에 14일에는 중국의 4월 고정자산 투자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3개월 연속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4월 20일 WM Daily 국내 주식 투자전략 ‘긍정적인 흐름 지속 전망’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016년과 2017년은 시진핑 정부의 실질적인 집권 4~5년차로 재정지출 확대(과거에도 집권 4~5년차에 중국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율이 평균20%를 넘어섰음)를 통한 투자사이클 회복 구간에 접어든다는 점에서 경기방어 효과와 더불어 펀더멘털 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결론적으로 최근 G2의 경제지표 부진(미국 경기회복 모멘텀 약화 및 중국 경기회복 기대감 후퇴)으로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였으나, 미국의 내수소비 회복과 중국의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감 완화 등으로 KOSPI는 차츰 안정을 찾아가면서 상승시도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소매판매 추이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중국 고정자산 투자 추이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